



MVPR-2008-37

VIP REPORT

2008. 10. 21.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 추이 및 대책
- 전방산업의 위기 대응력 제고 시급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백흥기,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 추이 및 대책 - 전망산업의 위기 대응력 제고 시급

Executive Summary i

1. 세계 금융위기의 실물위기 전이 1

2. 산업별 위기 대응력 점검 2

3. 종합평가와 시사점 13

■ HRI 경제 지표 16

1. 세계 금융위기의 실물위기 전이

미국 發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9월 중 자동차 판매규모가 생산자별로 보았을 때 도요타 32%, 포드 35%, GM 16% 그리고 현대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35.7로 3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의 소비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수출국들의 판로 또한 막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경쟁국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실물경기로의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금융부문에서의 위기는 6~9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물부문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IMF 외환위기 시기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현재의 산업간 비교를 통해 점검해 보았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석유화학, 조선, 철강, IT, 자동차, 일반기계의 6대 주력 수출산업과 내수경기의 바로 비터인 도·소매업, 그리고 제조업 다음으로 GDP 비중이 큰 건설업을 선택하였다.

2. 산업별 위기 대응력 점검

○ 점검 방법

(위기 대응력 점검 방법) 산업별 위기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위기내성 등 4개 영역을 살펴보았다. 수익성은 총자산 경상이익률, ROA(총자산 순이익율), ROE(자기자본 순이익율)를 지표로 사용했고, 안정성은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위기내성은 내부유보율과 현금성자산비율을 대리지표로 사용했다. 성장성 지표는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간, 시점간 비교를 위하여 각 지표를 표준화하여 합산한 후, 거미줄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시점 간 비교 (외환위기 vs. 금융위기)

(수익성)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주요 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며,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 개선 폭이 컸다. 한편 도소매 산업의 경우 2007년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5.9%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낮았으며 수익성 개선효과도 가장 낮았다.

(안정성) 국내 주요 산업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유동비율은 대부분의 산업이 100%를 상회하고 있었고, 특히 건설과 철강산업의 유동비율이 174.8%와 159.9%로 높았다. 부채비율은 전 산업이 200% 이하인 가운데, IT,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차입금 의존도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50% 정도였는데, 현재는 조선산업이 8.0%로 한자리수, IT, 자동차가 10%대 이며 나머지는 20% 대이다. **도소매와 기계장비가 각각 27.9%와 26.5%로 높은 차입금 의존도를 보였다.**

(위기내성(危機耐性)) 내부유보율은 전산업이 193.0%~752.1%나타나 긴급상황 도래시에도 외환위기 보다 우월한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참고로 외환위기 때의 내부유보율은 -2.8%~165.9%의 범위에 있었다.

(성장성)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총자산증가율은 그 속도가 떨어진 반면, 자기자본증가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외형위주의 성장보다는 내실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도소매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업종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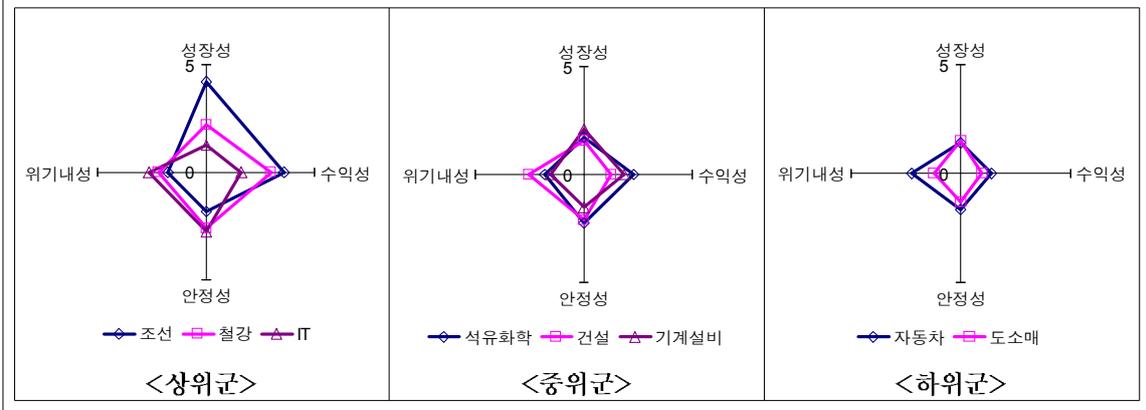
산업별 위기 대응력을 수치화하여 점검한 결과 조선, 철강, IT는 상위군, 석유화학, 건설 기계장비는 중위군, 자동차, 도소매는 하위군으로 분류되었다.

(상위군) 조선업과 철강업 IT산업이 상위군으로 분류되었다. 조선업은 수익성이 높고 차입금 의존도가 낮았으며, 철강업과 IT산업은 재무적 안정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위기상황에서 다른 사업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개 산업 모두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도 위기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위군) 석유화학, 건설, 기계장비는 중위군으로 분류되었다. 건설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졌고, 기계설비업은 안정성과 위기내성이 동일군 산업에 비하여 부족했다. 특히 기계장비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26.5%로 타 산업 보다 높아 안정성이 떨어졌다.

(하위군) 자동차산업과 도소매업은 하위군으로 분류되어 경제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산업의 대응력이 취약한 것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소매업은 수익성 (0.95),안정성 (1.30), 위기내성(1.21)에서 비교업종 대비 최하위에 머물렀다.

<산업별 위기 대응력 평가 (2007)>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위기내성	합계	위기 대응력
조선	4.23	3.57	1.81	1.76	11.38	상
철강	2.20	2.98	2.60	2.23	10.01	
IT	1.30	1.61	2.73	2.66	8.30	
석유화학	1.73	2.32	2.23	1.81	8.08	중
건설	1.56	1.28	2.12	2.53	7.50	
기계설비	2.10	1.87	1.54	1.54	7.06	
자동차	1.40	1.41	1.65	2.26	6.72	하
도소매	1.48	0.95	1.30	1.21	4.94	

3. 종합평가와 시사점

(종합평가)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실물위기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동차와 도소매 등 전방산업의 대응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에서 전방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 충격이 증폭되어 후방산업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전방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후방산업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과제) 첫째, 도소매업, 자동차산업 등 전방산업의 대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소세와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진작과 함께 기업투자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완화시기를 앞당기고, 기업의 투자 세액감면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실물 침체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권 부실로 인해 우량한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급격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과제) 첫째, 경제 침체기를 대비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업종 내 중복투자를 당분간 유의하고, 설비 가동률을 조정하여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신속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 확산에 선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 건설, 기계설비 등 위기 대응력이 중위권인 산업들의 경우,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 내 M&A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셋째,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증가시키고, 주력 생산품의 고부가가치 등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 추이 및 대책

- 전방산업의 위기 대응력 제고 시급 -

1. 세계 금융위기의 실물위기 전이

○ 미국 發 세계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부문을 전이되고 있음

-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

- 미국은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부문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의 EU 국가들도 모두 합쳐 1조 9,600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장기침체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실물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

- 통상적으로 금융위기는 6~9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물부문에 본격적으로 영향
- 미국에서 9월 중 자동차 판매는 도요타가 32%, 포드가 35%, GM이 16% 그리고 현대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심리가 최악을 기록
- 장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6일 “실물경제에 금융위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

○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의 실물위기 전이 시점에 맞추어 국내 산업들의 위기상황 대응력을 점검해 보고자 함

- 비교대상 산업으로는 자동차, 철강, 조선, IT, 석유화학, 일반기계의 6대 주력 수출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을 선정

- 6대 주력 수출산업은 제조업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산업
-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내수경기의 바로미터 일 뿐 아니라 각각 GDP의 5.9%와 8.9%를 차지하여 서비스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산업별 위기 대응력 점검

□ 위기 대응력 점검 방법

○ 산업별 경제 위기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 위기내성, 성장성 등 4개 영역을 살펴봄

- **확인방법** : 8개 산업을 대상으로 2007년과 외환위기 당시의 수익성, 안정성, 위기내성, 성장성의 4개 영역을 수치화하여 시점간, 산업간 비교를 실시
 - **수익성** : 총자산 경상이익률, ROA(총자산 순이익률), ROE(자기자본 순이익률)를 지표로 사용
 - **안정성** :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를 점검
 - **위기내성** : 내부유보율과 현금성자산비율을 대리지표로 사용
 -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점검
- **비교방법** : 산업간, 시점간 비교를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 위기내성, 성장성을 표준화 한 후 거미줄 모형 분석을 실시

□ 수익성 점검

○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주요 산업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며,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 개선 폭이 큼

- **총자산 경상이익률**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산업의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2% 미만이었으나, 2007년 현재 5~10% 대를 기록하고 있음
 - 국내 주요 산업 중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 개선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소매 산업의 경우 2007년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5.9%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낮았으며, 수익성 개선효과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총자산 경상이익률>

(단위: 십억 원, %, %p)

	경상이익		총자산 경상이익률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513	8,210	1.0	9.1	8.1
철강	△50	7,262	△0.4	10.6	11.0
기계장비	127	3,872	1.2	7.8	6.6
IT	△12	12,142	0.0	7.3	7.3
자동차	△1,114	6,986	△1.9	6.7	8.6
조선	363	5,517	1.3	10.3	9.0
건설	107	11,822	△0.1	6.8	6.9
도소매	△1,104	13,721	△0.8	5.9	6.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총자산 경상이익률 = (경상이익/총자산) × 100.

- **ROA(총자산 순이익률)** :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산업 중 석유화학과 조선을 제외한 산업은 순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 현재 거의 모든 산업의 순이익률이 5%를 상회함
 - 철강과 조선 등 수출 관련 산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소매와 건설 산업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총자산 수익률은 4% 대로 상대적으로 낮음

- **ROE(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7년 IT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0%를 상회함
 - 세계시장에서 국내 조선 산업의 독보적인 입지로 인해 2007년 국내 조선 산업의 ROE는 26.6%에 달했으며,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27.2%p 상승함
 - IT와 도소매 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각각 9.8%와 11.0%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ROA와 ROE>

(단위: 십억 원, %, %p)

	당기순이익		ROA			ROE		
	1997	2007	1997	2007	증감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248	6,125	0.5	6.8	6.3	1.8	12.3	10.5
철강	△268	5,589	△0.7	8.1	5.8	△2.5	13.1	15.6
기계장비	△10	2,873	△0.1	5.8	5.9	△0.3	13.3	13.6
IT	△236	9,968	△0.3	6.0	5.3	△1.3	9.8	11.1
자동차	△1,198	5,482	△2.3	5.3	7.0	△15.9	11.3	27.2
조선	363	3,995	0.9	7.4	6.5	4.1	26.6	22.5
건설	107	8,409	△0.4	4.8	5.2	△3.1	11.0	14.1
도소매	△1,104	9,945	△1.7	4.3	6.0	△11.1	10.4	21.5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 안정성 점검

○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국내 주요 산업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큰 폭으로 개선

- 유동비율 :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대부분 산업의 유동비율이 100%를 상회하지만 조선업은 100%를 밑돌고 있어 대규모 수주 철회 시 급격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건설과 철강 산업의 유동비율은 2007년 현재 174.8%와 1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조선 산업의 유동비율은 84.7%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10.2%p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조선업 경기 호황으로 선수금(미리 수취한 선박 수주 대금)이 유동부채의 75.6%에 달하기 때문임

<유동비율>

(단위: 십억 원, %, %p)

	유동자산		유동비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21,360	39,068	98.6	144.3	45.7
철강	12,854	28,822	82.8	159.9	77.1
기계장비	10,488	25,848	102.0	122.8	20.8
IT	31,126	59,863	102.4	144.4	42.0
자동차	26,969	42,541	92.7	111.1	18.4
조선	13,969	31,840	94.9	84.7	△10.2
건설	102,338	127,271	112.7	174.8	62.1
도소매	63,585	118,765	86.9	107.9	21.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부채비율>

(단위: 십억 원, %, %p)

	부채		부채비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39,172	42,244	274.7	79.5	△195.2
철강	28,968	28,738	265.7	63.7	△202.0
기계장비	15,292	30,067	446.4	129.4	△317.0
IT	68,779	66,032	372.5	60.9	△311.6
자동차	50,704	57,322	717.1	112.2	△604.9
조선	24,440	44,521	382.8	252.6	△130.2
건설	127,217	105,808	655.7	131.6	△524.1
도소매	92,350	142,435	612.6	142.0	△470.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부채비율 = (부채 총계/자기자본) × 100.

- 부채비율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인해 조선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낮아짐
 -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400%를 상회함으로써 재무구조가 극히 불안정했으나, 2007년 현재 대부분 산업의 부채비율은 200% 미만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2007년 현재 IT,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건설, 도소매 산업의 재무구조 개선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조선 산업의 부채비율은 252.6%로 외환위기 시기보다는 개선되었으나 기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음

- **차입금 의존도** :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50% 정도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현재는 10~20% 대로 낮아져 자금 경색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낮은 유동비율과 과도하게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조선 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기타 주요 산업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임
 - 주요 산업 중 도소매, 기계장비, 건설 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차입금 의존도>

(단위: 십억 원, %, %p)

	차입금		차입금의존도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8,962	8,436	53.1	22.0	△31.1
철강	5,625	7,425	47.4	24.1	△23.3
기계장비	3,449	6,645	46.6	26.5	△20.1
IT	9,508	7,195	57.4	15.6	△41.8
자동차	11,413	9,067	58.2	19.5	△38.7
조선	6,794	2,157	56.7	8.0	△48.7
건설	36,641	21,704	51.2	25.8	△25.4
도소매	22,595	39,451	41.1	27.9	△13.2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차입금 의존도 = [(단기 차입금+장기 차입금+회사채)/총 자산] × 100.

□ 위기내성(危機耐性) 점검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요 산업의 내부유보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위기내성이 증대되었으나 기계장비와 도소매 산업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위기에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유보율** :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산업의 유보율은 철강과 IT를 제외하고는 100%를 하회하였으나, 2007년 현재는 모든 산업이 100% 이상으로 증가
 - 이익잉여금 규모로는 도소매 업종이 50조 3,00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유보율은 철강산업이 750%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조선산업의 사내 유보율은 200% 이하로 8대 주요 산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기업들의 사내 유보율 급증은 외환위기를 통해 얻은 경험과 내수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요인 감소에 기인함

<내부유보율>

(단위: 십억 원, %, %p)

	이익잉여금		내부유보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3,522	26,036	60.1	267.5	207.4
철강	3,081	33,038	142.3	752.1	609.8
기계장비	1,047	12,729	60.2	217.8	157.6
IT	8,039	74,838	165.9	522.1	356.2
자동차	345	29,231	9.5	304.3	294.8
조선	1,251	7,065	44.3	193.0	148.7
건설	△363	47,351	-2.8	214.0	216.8
도소매	2,111	50,297	26.5	201.3	227.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내부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금) × 100.

- **현금성자산 비율** :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여파가 컸던 건설과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계장비와 도소매 산업의 감소가 두드러짐
 - 현금과 예금 규모로는 건설과 도소매 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규모를 감안하면 건설과 자동차 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이 가장 높음
 - 한편, 현금성자산 비율 하락 폭이 큰 철강, 도소매, 기계 장비 산업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4.2%, 4.7%, 5.1%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업들이 금융자산 투자를 확대함으로 인해 현금성 자산이 투자자산으로 이동한 결과임

<현금성자산 비율>

(단위: 십억 원, %, %p)

	현금 및 예금		현금성자산 비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3,399	5,014	6.4	5.3	△0.9
철강	2,091	3,104	5.2	4.2	△1.0
기계장비	1,581	2,726	8.5	5.1	△2.6
IT	4,955	9,770	5.7	5.6	△0.1
자동차	3,035	6,307	5.3	5.8	0.5
조선	1,760	3,444	5.7	5.5	△0.2
건설	7,500	12,165	5.1	6.5	1.4
도소매	8,480	11,340	7.9	4.7	△2.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현금성자산 비율 = (현금 및 예금/총자산) × 100.

□ 성장성(成長性) 점검

○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자기자본증가율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 총자산증가율 : 2007년 국내 주요 산업 중 조선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와 도소매 산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07년 조선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37.31%로 기타 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증가폭이 가장 큼
 - 반면, 자동차와 도소매의 총자산증가율은 각각 8.93%와 9.68%로 가장 낮았으며, IT 산업의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자본증가율 :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국내 주요 산업의 자기자본증가율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조선산업의 자기자본증가율이 가장 크고 자동차와 도소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조선산업의 자기자본증가율은 42.23%인 반면, 기타 산업의 자기자본증가율은 10% 대를 기록함
 - 주요 산업 중 자동차와 도소매의 자기자본증가율은 각각 10.81와 10.14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낮게 나타남

<총자산증가율>

(단위 : 십억 원, %, %p)

	총자산		총자산증가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53,431	95,415	19.50	12.98	△6.52
철강	39,872	73,888	18.99	16.55	△2.44
기계장비	18,718	53,303	12.11	16.02	3.91
IT	87,244	174,403	42.64	10.40	△32.24
자동차	57,775	108,433	26.14	8.93	△17.21
조선	30,825	62,150	22.28	37.31	15.03
건설	146,619	186,200	14.33	14.50	0.17
도소매	107,424	242,729	18.31	9.68	△8.6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총자산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 1) × 100.

<자기자본증가율>

(단위 : 십억 원, %, %p)

	자기자본		자기자본증가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14,258	53,171	4.69	14.99	10.3
철강	10,903	45,150	0.87	12.25	11.38
기계장비	3,425	23,236	3.03	16.36	13.33
IT	18,464	108,371	6.07	13.21	7.14
자동차	7,071	51,110	△11.27	10.81	22.08
조선	6,385	17,629	2.94	42.23	39.29
건설	19,401	80,391	5.91	11.56	5.65
도소매	15,074	100,294	△2.24	10.14	12.3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자기자본/전기자기자본 - 1) × 100.

- **매출액 증가율** : 2007년 국내 주요 산업 중 조선과 철강 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IT, 자동차, 건설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07년 조선과 철강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각각 25.37%와 18.68%로 주요 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IT, 자동차, 건설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4.37%, 9.09%, 7.74%로 기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증가율>

(단위 : 십억 원, %, %p)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1997	2007	1997	2007	증감
석유화학	37,204	100,654	11.45	10.03	△1.42
철강	26,425	71,574	9.95	18.68	8.73
기계장비	19,363	57,283	5.18	14.56	9.38
IT	64,348	179,424	17.33	4.37	△12.96
자동차	48,985	138,772	6.16	9.09	2.93
조선	17,881	47,693	17.17	25.37	8.20
건설	127,637	193,686	16.29	7.74	△8.55
도소매	247,239	382,839	15.22	10.56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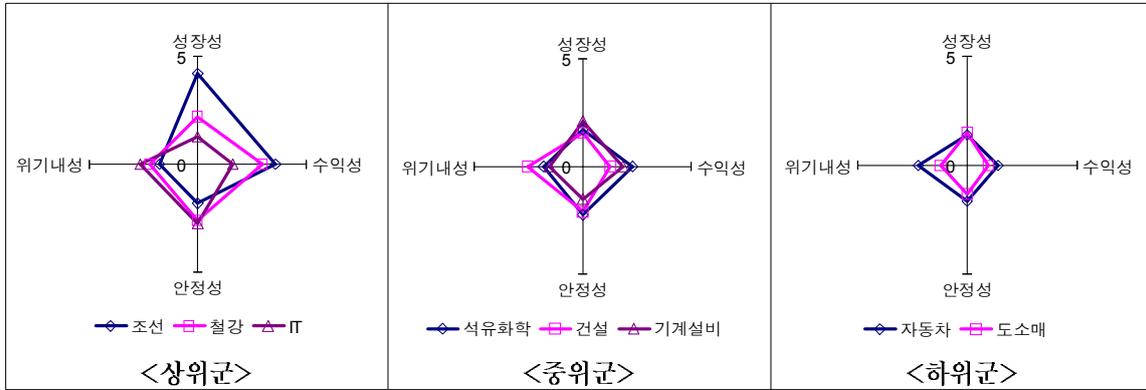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매출액증가율 비율 =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 1) × 100.

□ **종합평가**

- **주요 산업의 2007년도 위기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조선, 철강, IT 순으로 위기 대응력이 높게 낮으며, 도소매, 건설, 기계 장비 산업의 위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산업의 위기 대응력 비교(2007)>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위기내성	합계	평가
조선	4.23	3.57	1.81	1.76	11.38	상
철강	2.20	2.98	2.60	2.23	10.01	
IT	1.30	1.61	2.73	2.66	8.30	
석유화학	1.73	2.32	2.23	1.81	8.08	중
건설	1.56	1.28	2.12	2.53	7.50	
기계설비	2.10	1.87	1.54	1.54	7.06	
자동차	1.40	1.41	1.65	2.26	6.72	하
도소매	1.48	0.95	1.30	1.21	4.9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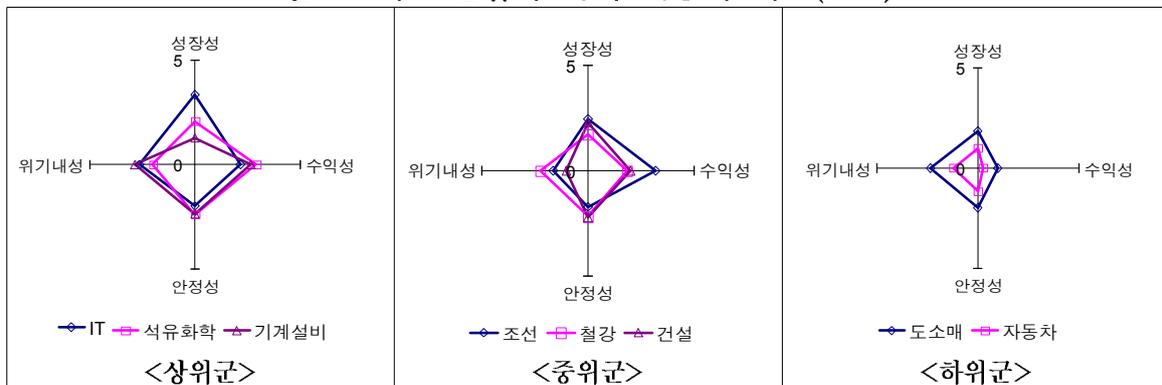
주1 : 표준화값 = $(x-m)/\sigma$, (x : 확률변수, m : 표본 평균, σ : 표본 표준편차).

주2 : 표준화값의 음수값을 양수화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2를 합산함.

- 조선산업 : 위기 대응력 1위인 조선산업은 수익성이 높고 차입금 의존도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율을 보임
- 철강산업 : 철강산업의 경우 내부 유보율이 752.1%에 달해 재무능력(Financing Abilit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입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IT 산업 : IT 산업의 경우 높은 내부 유보율을 보인 반면, 수익성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력 순위는 각각 4, 5위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낮은 수익성이, 석유화학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율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의 영향이 큼
- **기계장비 산업** : 기계장비 산업의 경우 낮은 유보율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은 전체 산업 중 2위를 보이고 있음
- **도소매업과 건설업** :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경우는 재무능력, 수익성, 차입금 의존도 등 위기 대응력의 모든 구성 요소 측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참고 : 주요산업의 위기 대응력 비교(1997)>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위기내성	합계	평가
IT	3.35	2.17	1.99	2.64	10.2	상
석유화학	2.06	2.87	2.39	2.04	9.4	
기계설비	1.28	2.64	2.36	2.85	9.1	
조선	2.44	3.20	1.73	1.64	9.0	중
철강	1.72	1.86	2.18	2.26	8.0	
건설	2.28	2.02	2.21	1.02	7.5	
도소매	1.87	1.00	1.99	2.34	7.2	하
자동차	1.01	0.24	1.15	1.20	3.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1 : 표준화값 = $(x-m)/\sigma$, (x : 화물변수, m : 표본 평균, σ : 표본 표준편차).

주2 : 표준화값의 음수값을 양수화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2를 합산함.

3. 종합평가와 시사점

○ (종합평가)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력은 획기적으로 향상

- 새로운 경제위기 발생 시 국내 주력산업의 생존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
 -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실물부문 전체의 위기상황 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전방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할 경우 후방산업으로의 영향력은 감소될 전망**
 - 위기상황에서 자동차와 도소매 등 소비자와 밀착한 전방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 충격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후방산업으로 전달
 - 전방산업의 대응력이 확충되면 후방산업으로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그 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

○ (정부의 과제) 전방산업의 대응력 보장, 기업투자 촉진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에 역점

- **도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전방산업의 대응력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 시급**
 -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
- **기업투자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에 초점**
 -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크게 완화
 - 기업의 투자 세액 감면 등은 전향적으로 실시
-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실물침체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

- 무엇보다 금융권부실로 인해 우량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 (기업의 과제) 경기 침체에 대비한 운영전략 마련, 경영 합리화를 통한 생존력 향상, 장기적인 생산성제고 노력 등이 요구

- 경기 침체에 대비한 운영전략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업종 내 중복투자를 당분간 유의하고, 설비 가동률을 조절함으로써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함

- 신속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 확산에 선대응

- 경영 합리화를 통해 경쟁력과 생존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
- 석유화학, 건설, 기계설비 등 위기 대응력이 중위권인 산업들의 경우 신속한 M&A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 이점을 활용할 것을 고려

- 지속적인 생산성제고는 어떤 상황이든 필수적

- 실물부문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증가시켜야 함
- 주력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이주량 연구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예상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

이만용 연구위원 (3669-4123, danieli@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6	2007(P)	2008(E)	상반기	하반기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5.1	5.0	4.9	5.3	4.5	
	최종소비지출 (%)	4.8	4.7	3.5	3.6	3.3	
	민간소비 (%)	4.5	4.5	3.4	3.6	3.2	
	총고정자본형성 (%)	3.6	4.0	4.3	2.5	6.0	
	건설투자 (%)	-0.1	1.2	2.8	1.5	4.0	
	설비투자 (%)	7.8	7.6	6.5	4.0	8.9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억 \$)	54	60	-10	-60	50
		무역수지(억 \$)	161	146	60	-30	90
	수출(억 \$)	3,255	3,715	4,330	2,130	2,200	
	증가율 (%)	(14.4)	(14.1)	(16.6)	(19.9)	(13.5)	
	수입(억 \$)	3,094	3,568	4,270	2,160	2,110	
	증가율 (%)	(18.4)	(15.3)	(19.7)	(26.9)	(13.1)	
기 타	소비자물가(평균, %)	2.2	2.5	3.8	4.0	3.5	
	실업률 (%)	3.5	3.2	3.3	3.5	3.2	
금 융	원/\$ 환율(평균, 원)	955	929	995	990	1,000	
	국고채금리(평균, %)	4.8	5.2	5.0	5.1	5.0	